

초임부의 부부관계와 부모기전이 보상/비용기대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Expectation on Reward/Cost and Martial Relation of First Pregnant Women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인간생활환경학과

강사 박정운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인간생활환경학과

교수 김양희

Dept. of Human Life Environment

Lecturer: Jungyun Park

Dept. of Human Life Environment

Prof.: Yanghee Kim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beginning of transition to parenthood expectation and applies the exchange theory in order to examine reward and cost of transition to parenthood expectation and picks up the main cause effecting it. This study conducted structured questionnaires to total 330 first pregnant women and examined descriptive statistic and t-test, F-test analysis by using collected data. And here are the result of research.

First,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expectation expected rewards much more than costs and had much importance on individual aspects in parenthood. The more were they aged, hardly educated and housewives, the higher did they showed expectation of reward. The less did they have high education, the more did they expect costs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expectation.

Second, to examine the reward/cost of transition to parenthood expectation according to martial satisfaction, the more did they have martial satisfaction, the more did they

expectation of the rewards on transition to parenthood expectation. On the contrary, the more did they respect from husbands, the less did they cost of transition to parenthood expectation.

This study would be helpful to lead family life having childbirth to the positive way by examining the process from childbirth plan to delivery. Also it will be applicable to seek for the methods to help would-be parents as basic data on material on education about transition to parenthood.

I. 문제의 제기

부모기 전이는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결혼생활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생활 사건이다. 부모됨은 개인들에게 성적 정체감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된 인성을 갖추게 하며,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게 하도록 한다. 아울러 자녀 출산은 새로운 것에 대한 성취감·창의감을 경험하게 하며 인간이 갖고 있는 애정과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정서적·심리적 만족감을 주게 된다.

자녀출산은 가족 내 형성된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자녀는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되면서 부부간에 친밀감·동료감을 증진시켜 결혼생활을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 또, 부모된 이들이 가족 내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확고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으며 가계 계승을 할 수 있고, 친족 관계망을 보존함으로써 세대간의 연속성을 지속시킬 기회를 준다.

부모됨의 이러한 의미는 과거 전통사회에서 강조되었으나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부모됨이 주는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가족유지 및 가족생산, 노후보장 같은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의미가 약화되고 개인적 수준이나 감정의 실용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지면서 부모됨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출산조절 가능, 서구적 가치인 개인적 지위·합리적 선택·쾌락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여성의 교육기회와 사회진출이 증가되면서 부모됨의 부정적 관점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자녀 양육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적·경제

적·서비스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실제적인 면에서부터 부모 역할 책임에 대한 부담 및 중압감과 같은 심리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대가를 치루게 된다. 또, 이러한 양육자체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출산 후 부부관계가 출산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못하며, 부모 자신들의 가족 내 자원을 자녀 양육에 투자하게 되면서 개인적 생활 영위를 위한 제반 여건들에 제한을 받게 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는 등의 개인적 생활을 누리는데도 제약을 받게 된다(Power & Parke, 1984).

부모됨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부여되는 의미가 변화되고 있고, 출산 자체가 선택을 하게되는 의사결정의 문제에 이르고 있지만, 많은 결혼한 부부들은 자녀출산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부모됨의 긍정적·부정적 의미가 누구나 동일하게 수용되기 보다는 개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며,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도 각기 달라 질 수 있음을 말한다. 결국 개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부모됨의 의미는 임신에서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부모기 전이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전이 후의 적용에 매우 중요하다. 임신기부터 갖고 있는 부모기 전이에 대한 기대감은 전이 후의 부모 역할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처하고 부모자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게 하는데 기초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기 전이 과정이 자녀출산 이후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부모기 전이 기대감을 보상/비용의 측면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기 전이의 보상/비용

부모기 전이는 임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출산 후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부부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1950년대 부모기 전이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부모됨이 현재 유지되어 온 체계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안정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위기로써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모기 전이의 경험들은 어렵고 긴장을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생애 발달 주기의 시각으로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역할 전환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위기로 보여지던 부모기 전이는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파악하게 되면서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부모 역할 수행에 따른 만족감이나 보상을 다루게 되면서 부모됨을 가족생활의 한 전이 과정으로 "전이" 혹은 "전환"이란 개념을 적용하게 되었다. 현재 부모됨과 관련된 연구에서 부모기 전이는 중립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까지 부모기 전이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주로 스트레스 이론으로서 Double ABCX 모델·역할긴장 이론 등이 적용되어왔다. 두 이론은 부모기 전이 후 적응이나 부모 역할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 용이한 반면 전이 시점이 되는 임신기간에서 부모기 전이 자체가 갖는 의미나 전이 자체에 관한 분석이 되는 부모됨의 기대감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부모기 전이에 대한 기대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녀출산이 주는 보상/비용의 측면으로 교환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부모기 전이의 보상과 비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국외와 국내의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의 경우 1950년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부모된 이들의 역할 분석에 초점을 두고 부모기 전이 후 만족감과 어려움을 파악하였는데(LeMasters, 1957; Dyer, 1963; Hobb, 1965; Mey-

erowitz & Feldman, 1966; Simmel, 1974; Russell, 1974) 특히 초기에는 부모 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LeMasters, 1957; Dyer, 1963; Simmel, 1974)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어려움과 만족감을 함께 다루는 연구(Ross, 1968; Russell, 1974; Hobb & Cole, 1976)들로 바뀌었다.

부모됨의 이러한 특성은 초기의 LeMasters(1957)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는데 그에 따르면 부모됨을 경험한 이들의 대부분은 "광범위한" 혹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는데 이는 부모됨에 대한 환상과 준비하지 못함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 Dyer(1963)와 Simmel(1974)도 부모기 전이의 부정적 영향력을 발표하였는데 부부들의 과반수 이상이 부모됨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호소하였다.

1960-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모됨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게 되면서 어려움과 만족감이 함께 다루어졌다. Hobbs(1965, 1968)는 첫 자녀 출산 후 부부 적응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부모들은 부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출산 전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느낀다고 하였다. Russell(1974)은 역시 부모역할은 어려움 뿐만 아니라 만족도가 공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내연구는 1980년대부터 부모기 전이에 관심을 보이면서 1990년대 이후 점차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이혜란, 1984; 원정선, 1989; 이숙현, 1990; 송지은, 1993; 현운강, 1994; 양명숙, 1994; 이정화·한경혜, 1995), 보상/비용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국내연구의 경우 공통적인 연구결과는 부모됨을 보상감이 높게, 긴장감이나 위기감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녀가 주는 긍정적 결과를 크게 인지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기 전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받는 보상/비용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적 측면과 가족 전체에게 주어지는 측면에 주어지는 보상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애정, 자극과 재미, 자아의 확장, 성인의 지위, 성취와 창의력, 도덕, 경제적 유용성(Hoffman &

Manis, 1979; 현은강, 1994 재인용)을 느끼는 행복감을 주며, 즐거움을 느끼고 부모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 심리·정서적 보상을 준다. 이 외에도 부모된 이들은 사망율이 낮고(Korbin & Hendershot, 1977), 건강을 유지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Umberson, 1987). 또, 부모된 이들은 아기의 성장, 자신의 분신, 아기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며 남편에게만 억매이지 않음도 보상이 되고 있다.

부모기 전이는 개인적 보상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다양한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부모 전이는 부부관계만의 이원체계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추가됨으로써 성숙된 보상을 주는 삼원체계로의 전이(Meyerowitz & Feldman, 1966)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관계보다는 부모-자녀관계가 더 우선시되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반영으로 부모됨은 가족 전체에 주는 의미 또한 매우 크다. 부모됨은 가족 결속의 보상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 연구들에서 부모기로의 전이 후 오히려 결혼의 질이 향상(이숙현, 1990)되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 Belsky, Lang & Rovine(1984)는 친척과의 왕래나 접촉이 증가하고 조부모와의 관계가 밀접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기 전이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만큼 부정적 결과도 초래하게 된다. 부모기 전이에 대한 비용은 새로운 자녀의 추가로 인한 부부관계, 배우자 역할형성의 재적용, 상호작용 재구성 등의 역동적인 변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유발하게 된다.

실제 자녀를 가짐으로써 부모됨은 경제적 스트레스(Gove & Hughes, 1984; Qvortup & Christofferson, 1990; Bird, 1997 재인용), 양육에 대한 책임, 특히 취업모의 직장시간 동안의 자녀양육 등이 증가하게 된다. 부모 역할 수행에 따른 부정적 경험은 신체적·정서적 긴장감, 경제적 비용 등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데 자녀 양육에서 오는 역할 부담이나 그로 인한 어려움(박숙자, 1991; McKim, 1987; Ruble, Hackel, Fleming & Stangor, 1988; Ventura, 1987)등이 신체적인 긴장감으로 느낄 수 있으며, 아울러서 디스트레스, 우울등이 정서적 긴장감(Scott & Alwin,

1989; (Mirowsky & Ross, 1993))으로 표현될 수 있다.

부모기 전이는 개인 생활, 부부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특히 부부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녀출산 후 결혼만족도가 떨어지고(고선주·옥선화, 1993; 양명숙, 1991; Belsky, Spanier & Rovine, 1983)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대처자원이 감소하고 되며 중압감이 가중된다.

부모기 전이는 개인에게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보상과 역할 수행에 따른 비용을 치루게 하는 경험이 함께 주어진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국내 연구의 경우 부모기 전이 보상/비용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연구들이 전이 후에 치중하여 양육에 따른 보상과 비용의 수량적 측면만을 다루고 있지만 보상과 비용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개인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기 부모들이 보상과 비용을 전이 시작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부모기 전이의 보상/비용의 지각정도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보상과 비용이 어떠한지 고찰할 것이다.

2. 부모기 전이와 부부 관계

1980년대 접어들면서 부모기 전이는 부모 역할보다는 개인 및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특히 부모됨과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Miller & Sollies, 1980; Glenn & McLannhan, 1982; Belsky, Spanier & Rovine, 1983; Cowan et al., 1985; Worthington & Buston, 1986; Belsky & Rovine, 1990; Wallace & Gotlib, 1990; Simons et al., 1990; Bird, 1997; Besty Garrison et al., 1997)들로서 부모기 전이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지만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부모됨 전이가 남녀 모두 개인적 적응이나 커플로서의 적응에 있어 결혼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 부모됨 전이로

인해서 가족·결혼의 위험 증가하고 정신·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게되어 부모들이 디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갖는다.

Miller & Sollies(1980)에 따르면 부모기 전이는 부부 상호간의 가족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역할긴장으로 인해서 부부의 역할수행에 곤란을 느끼며, 부부 역할 수행에 더욱 부정적 평가를 하며, 상호지지가 감소하게 됨으로서 부부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Belsky, Spanier & Rovine(1983,1985)과 Glenn & McLanahan(1982)는 부모기전이 후 결혼적응의 감소가 나타나며, 특히 산후 초기가 배우자, 자녀 모두 관계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이 감소하는데 이 시기에 부부는 낭만적 측면이 감소되고 서로를 위한 여가시간이 줄고 갈등이 증가하여 가족내 정서적 표현이 감소하는 기능상의 변화로 인해 만족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몇몇 연구에서는 부모기 전이 후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은 전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결혼의 시간경과에 따른 친밀감의 결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owan et al, 1985 : Huston, 1985 : White & Booth, 1985 : Macdermid et al., 1990 : Cowan & Cowan 재 인용, 1995). 자녀가 결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자녀의 수와 터울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나타나며, 부모기 전이를 통해서 자녀 갖기 이전의 부정적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보상심리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또, Cowan et al(1985)에 따르면 부부관계의 질적 변화는 개인의 자아감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평가하여 전이 후 변화의 인식 차가 부부만족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White & Booth(1985)의 연구에서 부부만족도는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결혼의 시간경과에 따른 감소로서 부모가 경험하는 결혼적응이나 만족도의 감소는 무자녀 커플들이 시간경과에 따라 경험하는 결혼의 친밀감의 감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 전이 효과라고 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전이 후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들

이 수행되었는데 (이숙현,1990; 박숙자, 1991; 양명숙, 1991; 고선주·옥선화, 1993; 고선주, 1996) 연구 결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박숙자(1991)와 양명숙(1991)은 부모기 전이 후 결혼만족도가 감소한다고 지적한 반면에 이숙현(1990)은 첫 자녀 출산 후 부부관계의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졌다고 인식하였고, 부모가 됨으로써 가정에 남편의 적극적인 참여, 부부간의 대화가 증진, 부부신뢰감이 증대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고선주·옥선화(1993)의 연구에서도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응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임신기 동안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부모기 전이에 따른 결혼생활의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부모기 전이 후 결혼생활의 변화는 전이 자체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전이 이전부터의 부부관계가 전이 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이과정에서의 부부관계가 부모됨 기대감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초임부의 부모기 전이 보상/비용 기대감의 하위영역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임부의 부모기 전이 보상/비용 기대감의 하위영역은 결혼만족도 하위요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는 부모기 전이 후의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상/비용 기대감을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전이초기에 있는 초임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를 초산으로 한정된 것은 실

제 부모가 된 후의 경험에서의 보상/비용이 아니라 기대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첫 자녀의 출산을 경험한 어머니들은 자녀 출산과 양육경험 자체가 보상과 비용을 다르게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이나 자녀 양육경험이 보상/비용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초임부로 제한하였다.

2) 측정 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검증된 것을 예비조사를 통해서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연구문제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측정도구 구성을 위해서 신뢰도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적용하였고 추출된 하위 요인 및 전체를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1) 부모기 전이 보상 기대감

부모기 전이 보상기대감에 대한 척도는 Russell (1974)의 부모역할 전이에 대한 보상감을 내용으로 한 선행연구들(이혜란, 1984; 원정선, 1989; 송지은, 1993)을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Russell의 만족감 척도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문항은 제거하였다.

보상 기대감은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2개의 하위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1은 부모가 되었을 때 개인이 받기를 기대한 만족에 관한 내용이므로 개인 보상 기대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나 친척등의 가족 관계 및 이웃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나타내므로 관계 보상 기대감으로 명명하였다.

(2) 부모기 전이 비용 기대감

부모기 전이 비용 기대감은 Hobb(1965), Stefensmeier(1982)가 사용한 부모역할 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측정하는 내용으로서 선행연구들(이혜란, 1984; 원정선, 1989; 송지은, 1993)을 참고로 하여 수정, 보완하여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인 분석 결과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졌다.

요인 1은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감, 성적관계,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데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

부 생활 방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개인 생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측면으로 시간적·사생활 면에서 방해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생활 방해'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부모역할 수행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신체적·심리적·경제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의 내용을 나타냄으로 '부모 역할 부담'으로 명명하였다.

(3) 부부관계

부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결혼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결혼만족도 척도는 Roach(1975)가 개발한 것을 Bowden(1977)이 재구성한 내용으로 선행연구(이인수, 1986; 이동철, 1993 재인용)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서 결혼만족도는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1은 남편과 관계가 원만하며 결혼이 성공적이라고 여기고 결혼생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결혼 생활 만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존중'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3은 여가활동을 같이 하거나,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스스로 결혼에 대해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등의 결혼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상호지지'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나 나에 대해서 남편이 잘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신뢰'로 명명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척도구성은 <표 1>과 같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예비조사는 초임부 50명을 선정하여 질문지 조사를 하였고 본 조사는 1998년 8월 1일부터 1998년 8월 15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총 4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조사방법은 사전 훈련된 조사원을 통해서 초산임산부를 접할 수 있는 종합병원 및 개인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회수하거나,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변 수	하 위 영역	M(SD)	Cronbach α	문항수	점수범위
보상기대감	개 인 보 상	5.90(.92)	.8911	8문항	8 - 56
	관 계 보 상	5.22(1.05)	.7658	5문항	5 - 35
비용기대감	부 부 생 활 방 해	3.53(1.29)	.8901	6문항	6 - 42
	개 인 생 활 방 해	4.65(1.34)	.8141	5문항	5 - 35
	부 모 역 할 부 담	4.30(1.26)	.7659	5문항	5 - 35
결혼만족도	결 혼 생 활 만 족	5.57(.95)	.8999	9문항	20 - 63
	존 중	5.70(1.02)	.8081	3문항	6 - 21
	상 호 지 지	5.15(1.21)	.7968	5문항	12 - 42
	신 뢰	5.00(1.14)	.6957	4문항	17 - 21

우편으로 질문지를 반송 우표와 함께 보낸 후 회수하였고, 배부된 설문지 430부 중 33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한 통계 분석 방법은 SPSS WIN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수, 결혼만족도 따른 부모기전이 보상/비용 기대감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t test, F-test, Duncan's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령, 학력, 직업유무, 소득, 직업유형, 결혼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7.46세였고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5세 미만이 21.0%를 차지하였고 25세-28세가 50.2%, 29세 이상이 28.8%로서 25-28세의 연령이 가장 많이 표집 되었는데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초산임산부로 제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49.4%로 가장 많았고 고졸 42.4%, 대학원졸 이상이 5.2%, 고졸이하가 3.0%의 순으로 나

타나 연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대졸이상의 학력으로 비교적 교육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직업유무는 직업이 있는 여성이 45.1%이었으며 전업주부가 54.9%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특히 전업주부 중에는 출산예정으로 또는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있었으며,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취업주부들은 출산 후 직업복귀 질문에 대해 85.3%가 다시 직장을 다닐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취업여성의 직업유형으로는 전문직이 18.3%, 사무직이 12.6%이 대부분이었으며, 나머지는 자영업(3.6%), 관리직(2.5%), 기술직(1.9%), 서비스직(1.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 월수입은 100-150만원이 3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00-250만원이 22.3%, 150-200만원이 21.3% 250-300만원이 8.0%, 300만원 이상이 7.0%, 100만원 미만이 5.7%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평균 개월수가 11.04개월로 조사되었으며 개월별 분포를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이 42.1%, 6개월-12개월이 30.8%, 13개월-24개월이 17.1%, 25개월에서 36개월이 7.2%, 36개월 이상이 2.7%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인	집 단	빈도 (%)	변인	집 단	빈도 (%)	
연 령	25 세 미 만	69 (21.0)	취업 유무	있 다	146 (45.1)	
	25 세 - 28 세	165 (50.2)		없 다	178 (54.9)	
	29 세 이 상	95 (28.8)	출산후 복귀 여부	다시 다닐 것이다.	122 (85.3)	
학 령	고 졸 이 하	10 (3.0)		다니지 않을 것이다.	21 (14.7)	
	고 졸	140 (42.4)		직업	전 문 직	58 (18.3)
	대 졸	163 (49.4)			관 리 직	8 (2.5)
대학원졸 이상	17 (5.2)	사 무 직	40 (12.6)			
수 입	100만원 미만	18 (5.7)	생 산 직		1 (3)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12 (35.7)	단 순 노 무 직		1 (3)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67 (21.3)	기 술 직	6 (1.9)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70 (22.3)	영 업 직	5 (1.6)		
	250만원이상-300만원미만	25 (8.0)	자 영 업	12 (3.8)		
	300만원 이상	22 (7.0)	서 비 스 직	6 (1.9)		
결 혼 년 수	6개월 미만	128 (42.1)	비공식부문 취업자	0 (0)		
	6개월이상 -12개월이하	93 (30.8)	가 정 주 부	175 (53.0)		
	13개월이상 -24개월이하	52 (17.1)	기 타	5 (1.5)		
	25개월이상 -36개월이하	22 (7.2)				
	37개월 이상	8 (2.7)				

2. 초임부의 부모기 전이 보상/비용 기대감의 하위영역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부모기 전이 보상/비용 기대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보상 기대감과 비용 기대감의 하위요인별로 차이가 있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보상 기대감을 살펴보면 연령과 직업은 관계 보상에서 차이가 있었고($p < .05$) 학력은 개인 보상 기대감에서 차이($p < .05$)를 나타냈다.

즉, 연령이 높고(27세 이상) 전업주부일수록 부모기 전이에서 관계 보상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나서 부모가 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친척·이웃관계가 향상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이가 많은 전업주부들은 개인보다는 가족을 우선시 하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사회화되어 자녀가 가족의 유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

히, 전업주부들은 자신들의 주된 생활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변화가 없는 지루한 생활이 될 수 있는데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생활의 새로운 경험으로 정적인 생활에 활기가 되며 그에 따라 남편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친족관계도 더 긴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 보상 기대감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보였는데 학력은 직업, 사회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학력이 낮은 경우 직업이 없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좁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서 여성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게 될 것이다. 또, 자녀출산이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녀는 어머니 개인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대리성취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되며, 자녀를 키우면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비용 기대감의 하위요인 중

〈표 3〉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부모기전이 보상/비용 기대감

종속 독립	집단	보상 기대감				비용 기대감					
		관계보상		개인 보상		부부생활방해		개인생활방해		부모역할부담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연령	27세미만	183	5.11 (1.07)	182	5.85 (.90)	184	3.60 (1.25)	183	4.68 (1.19)	181	4.46 (1.18)
	27세이상	142	5.36 (1.03)	144	5.98 (.96)	144	3.45 (1.36)	143	4.43 (1.51)	143	4.12 (1.33)
	T	-2.133*		-1.173		1.063		1.650		2.320*	
수입	200만원 미만	194	5.15 (1.03)	196	5.88 (.85)	197	3.53 (1.27)	196	4.56 (1.29)	194	4.30 (1.27)
	200만원 이상	130	5.32 (1.10)	130	5.96 (1.04)	131	3.54 (1.35)	130	4.58 (1.42)	130	4.30 (1.27)
	T	-1.383		-.773		-.018		-.154		-.040	
학력	고졸이하	145	5.33 (.99)	182	6.02 (.80)	149	3.63 (1.24)	149	4.49 (1.40)	145	4.25 (1.32)
	대졸이상	179	5.13 (1.10)	144	5.82 (1.02)	179	3.45 (1.34)	177	4.63 (1.29)	179	4.35 (1.21)
	T	1.692		1.932*		1.219		-.959		-.688	
직업	있음	140	5.09 (1.07)	140	5.87 (1.10)	141	3.63 (1.29)	140	4.65 (1.28)	140	4.43 (1.24)
	없음	171	5.33 (1.01)	173	5.94 (.87)	174	3.45 (1.31)	171	4.49 (1.38)	171	4.19 (1.27)
	T	-2.094*		-.674		1.201		.996		1.670	

* p<.05

부모 역할 부담 요인에서만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즉,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초임부들에게 부모됨은 연습 없이 맞이하는 새로운 경험이므로 그로 인한 막연하고 두려움이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연령에 따라서 부모기전이 비용 기대감의 차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성숙정도가 낮아서(Roosa, 1988; Heath, 1995; Besty Garrison et al., 1997 재인용) 부모-자녀관계에서 부여되는 책임으로 양육부담이 크게 인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초임부의 부모기전이 보상/비용 기대감의 하위영역은 결혼만족도 하위요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핵가족은 부부가 중심이 되며 가족생활의 전반에 부부관계가 영향을 주게 된다. 초임부들의 결혼만족도는 결혼에의 적응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부모기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혼만족도에 따른 기전이 기대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제시된 것처럼 결혼 생활 만족, 존중, 상호지지, 신뢰의 하위영역 모두가 관계 보상에 차

〈표 4〉 결혼 만족도에 따른 부모기 전이 보상/비용 기대감

종속 독립	집단	보상 기대감				비용 기대감					
		관계보상		개인보상		부부생활방해		개인생활방해		부모역할부담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결혼 생활 만족	하	102	4.88 a (.85)	102	5.57 a (.88)	102	3.62 (1.08)	103	4.52 (1.19)	102	4.31 (1.24)
	중	107	5.27 b (1.03)	108	5.98 b (.89)	110	3.58 (1.14)	108	4.65 (1.29)	109	4.33 (1.17)
	상	110	5.43 b (1.17)	111	6.11 b (.93)	111	3.39 (1.58)	110	4.48 (1.52)	108	4.23 (1.39)
	F	7.793***		10.084***		.972		.501		.195	
존 중	하	105	5.22 a (.98)	104	5.80 (.85)	106	3.80 a (1.19)	107	4.62 (1.04)	105	4.50 (1.27)
	중	96	5.11 ab (1.03)	99	5.88 (.93)	99	3.61 ab (1.43)	98	4.51 (1.21)	97	4.22 (1.15)
	상	121	5.31 b (1.14)	121	6.03 (.97)	121	3.21 b (1.44)	119	4.56 (1.54)	120	4.18 (1.33)
	F	9.855***		1.796		6.330**		.155		2.041	
상 호 지 지	하	107	4.94 a (.97)	105	5.69 a (.87)	107	3.64 (.94)	108	4.66 (1.19)	107	4.49 (1.24)
	중	109	5.33 b (.93)	113	5.98 b (.92)	113	3.48 (1.38)	111	4.47 (1.27)	109	4.11 (1.19)
	상	101	5.44 b (1.14)	101	6.08 b (.86)	101	3.42 (1.56)	100	4.59 (1.56)	101	4.32 (1.35)
	F	7.027**		5.699***		.808		.587		2.563	
신 뢰	하	95	4.98 a (.92)	96	5.76 (.80)	98	3.43 (1.04)	97	4.54 (1.18)	96	4.30 (1.23)
	중	119	5.18 ab (1.01)	118	5.91 (.91)	118	3.77 (1.24)	118	4.65 (1.34)	117	4.37 (1.19)
	상	107	5.42 b (1.16)	109	6.01 (1.04)	109	3.34 (1.52)	108	4.49 (1.49)	108	4.21 (1.37)
	F	4.278*		.743		3.488*		.395		.401	

* p<.05 ** p<.01 *** p<.001

이가 있었으며, 개인 보상 기대는 결혼 생활 만족과 상호지지에서 차이가 있었다. 비용 기대감은 존중, 신뢰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편과의 관계에서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해서 만족할수록, 남편으로부터 존중받을수록, 상

호 지지해 줄수록, 신뢰감이 높을수록 관계 보상 기대감이 높았다. 남편과 결혼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자녀출산 후에 지금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고 서로에게 불만족한 부분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 친척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이웃

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들은 자녀가 부부간의 정서적 관계를 더 향상시키게 하는 긍정적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상기대감의 하위 영역별로 볼 때, 관계 보상 기대감은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존중, 결혼생활 만족 요인에서 집단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존중요인의 경우 F값이 9.855로서 집단간 차이가 가장 컸는데, 남편이 자신을 존중할수록 부모가 되었을 때 어머니라는 역할은 여성에게 가족 내 위치를 확고하게 해서 가족 내 관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결혼 생활 만족 역시 관계 보상의 집단간 차이가 높는데 이는 현재 생활이 적응되어서 결혼생활이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부모됨을 맞이하기 때문에 부모 역할에 따르는 비용이나 어려움을 지각하기 보다는 부부만의 일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경험으로 인식되어 결혼생활에 활기를 줄 수 있고, 가족 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 보상 기대감은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상호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됨은 안정된 생활 속에서 부모가 되기 때문에 당혹감이나 불안감보다는 부모됨이 주는 보상을 더 많이 기대하였다. 관계 보상에서와 같이 결혼생활 전반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자녀출산 및 양육은 어머니에게 개인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심리적인 만족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부모기 전이라는 생소한 경험을 통해서 어머니들은 자신을 통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며 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상호지지가 높은 집단이 개인 보상의 기대가 높은 것은 남편을 통해서 임신 중에 느끼는 신체적·심리적인 변화를 위로 받고 자녀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됨 자체가 만족스럽게 느껴진 결과라고 해석된다.

결혼만족도에 따른 보상 기대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현재 남편과의 관계가 행복하다고 느낄수록 자

녀는 부부의 애정의 산물로서 여겨지며, 부부의 결혼생활에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으며, 성숙한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선행연구(Colman & Colman, 1971; Power & Parke, 1984 재인용)와 비교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선행연구에서 임신기간 중 남편은 부인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만 출산 후 정서적 지원이나 표현이 줄어들어서 부부관계가 부정적인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재의 상호 지지가 전이 후 적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이 후 부모 역할 및 부부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비용은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존중, 신뢰 요인에서 부부 생활 방해 영역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초임부들은 남편으로부터 존중받으며 동등한 위치에 있을수록 자녀가 부부관계를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부모기 전이 후 성역할 변화에서 남성은 남성성이 더욱 강해지고 여성은 여성성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함께 연계해 본다면 현재의 동등한 관계가 자녀 출산 후에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전이 이전의 남편으로부터 존중감이 높았던 것이 출산 후 지속되지 못한다면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으로 부부갈등의 여지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비 부모 교육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신뢰감 역시 부부관계 방해에 영향을 주지만 추후검증에서 구체적인 집단간 차이는 밝혀지지 않았다.

결혼만족도에 따른 전이 기대감의 차이는 선행연구(Simons Whitbeck, Conger & Melby, 1990)에서 부부 관계에서 주어진 만족의 정도가 부모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와 일치되며 원정선(1989)의 연구에서 부부간의 일치도는 부모기 전이 만족감에 정적, 어려움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결과와도 일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부모기 전이에 대해서 초임부들의 부부관계가 부모기 전이 기대감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본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은 내릴 수 있다.

첫째, 초임부들의 부모기 전이 보상/비용 기대감은 비용의 측면보다는 보상을 더 크게 기대하고 있었으며, 특히 어머니 개인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볼 때 신세대인 20대의 젊은 주부들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동기가 제도적, 가족적 동기보다는 개인적 측면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초임부들은 자녀 출산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으로서의 성숙함과 자녀성장을 보면서 느끼는 희열이나 기쁨이 있을 것으로 여김으로서 자신의 특정 목적을 성취하거나 자녀를 통해서 삶의 새로운 기회를 갖는 도구적인 동기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 자녀출산 후 부부관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여, 결혼생활에서 자녀는 부부관계의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부부관계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여기서 초임부들이 자녀 출산의 긍정적 보상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은 자녀출산과 양육에서 유발되는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스트레스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초임부들의 자녀출산의 부정적 측면인 비용 지각에서 개인생활의 방해의 기대수준이 높았을 뿐 부부관계, 양육부담을 문제시하고 있지 않음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초임부들이 부모됨을 계획하고 부모기 전이를 맞이하는 것이 낭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는 보상을 제공하는 존재로 여기는 전통적 가족 가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임으로 초임부들은 부부관계의 변화나 양육부담에 느끼는 스트레스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겠다. 실제 초임부들의 이러한 기대감에 반해서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첫 자녀 출산 후 부부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거나 부정적으로 변화됨을 제시하고 있어

전이 과정에 대한 교육과 전이 후의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부모기 전이 보상/비용 기대감은 연령에 따라서 보상/비용 기대감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기 전이 시기 결정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부모됨을 연기한 사람들이 부모됨 전이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을 나타난 것을 감안해 볼 때 부모가 되는 시기는 부부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전이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다.

한편, 그 외 사회인구학적 변수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 이는 국내 선행연구들(이혜란, 1984; 원정선, 1989)과 유사한 결과이다. 결국 현대 사회의 독신과 자발적 무자녀 가족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부들에게 부모됨은 결혼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가족생활 사건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할 것이며, 부모기 전이는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구의 연구결과(Blossfeld & Jaenichen, 1992; Schlesinger & Schlesinger, 1989; Balwin & Nord, 1984; Wilkie, 1981; Besty Garrison et al., 1997 재인용; Bird, 1997)에서는 수입, 직업유무, 학력은 부모됨 전이 기대감이나 적응에 있어서 결정적 변수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음으로 미루어 현대의 신세대 젊은 부부들이 부모됨을 의사결정하는 선택의 문제로 전환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우선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은 일과 자녀출산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고 있지 않는데 선행연구에서(이숙현, 1990) 취업모가 부모기 전이 적응을 더 잘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부모됨 자체 기대감에 관련된다기보다는 자녀 양육과정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부모기 전이 후 적응에 관한 결과들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도 알 수 있다.

세째, 부모기로의 전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부모됨 보상/비용 기대감에 결혼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부관계가 부모기 전이 시작에서부터 출산 이후의 전이 적응에 도움을 주게 된다. 특히 하위 변인들 각각은 보상기대감에서 집단차이가 나타났으나 비용 기대감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으므로 미루어 현재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는 부모됨을 높은 보상감으로 인지하게 하는 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을 제시해 준다.

전이 과정에서의 부부관계는 임신에서부터 전이 적응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부부관계는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및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부부간의 존중은 부모기 전이후 부모기 전이 보상/비용 지각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녀출산 이전에 이에 대한 부부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결함으로써 동등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면 부모기 전이는 부부 모두에게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 초임부들은 임신 중에 가졌던 부부관계에 대한 이상화시킨 기대감을 현실화하여 출산 후의 부부관계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 측면에서의 예비 부모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원만한 부부 적응을 통해 자녀 출산으로 전이하는 것이 부모 역할 수행과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 가족 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두 사람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부부관계를 진단해 줌으로써 자녀출산이 가족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혼으로 시작되는 가족생활주기는 각 단계마다

주된 과업이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응집성도 적당한 수준에서 변화된다는 가족 역동성을 이해시킴으로써 부모기로의 전이 후의 부부관계와 개인의 변화는 불가피함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와 전략을 교육하는 것이 가족생활의 부정적인 문제를 감소시키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기 전이전의 새로운 시도이었기에 한계점을 갖는데 부모됨 보상/비용 기대감에 대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기 전이 전후의 요인들이 보상/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 것으로 보상/비용 기대감이 전이 후의 양육과 가족생활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부모됨의 보상 기대감이 실제 부모됨의 경험과 일치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부모기로의 전이 전과 후를 연결한 연구들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됨의 보상과 비용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측정도구를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족가치와 가족생활 유형이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나라 가족문화와 일치하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부모됨의 보상과 비용을 보다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도구로 측정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첫 자녀 출산 예정인 여성에게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여성의 전이 보상/비용 기대감은 남편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남편의 부모기 전이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조사하여 부부간의 부모됨 지각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넷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계층에 따라 부모됨의 의미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표를 사용해 세분화하여 부모됨 연구를 통해서 집단별 특성에 적합한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부모기 전이 과정을 분석하여 부모됨의 보상/비용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부모됨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모기 전이 시점에서의 보상/비용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부모기 전이에 대한 만족감이나 어려움은 출산 후에 경험뿐만 아니라 출산 전의 부모됨의 수용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자녀 출산 이전에 기대되는 보상과 비용이 출산 후에 일치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부모기로의 전이 과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는데 전이 시작시점에서 본 보상/비용 기대감을 밝힘으로써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 부모기 전이 과정에서 전이 전의 부부관계가 영향을 줄을 밝힘으로써 부부관계 강화가 부모기 전이 보상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원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생의 주기에서 출산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부부가족에서 부모-자녀 체계가 추가되는 가족생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 결과는 개인의 부모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 부모기 전이 교육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고선주(1996). 부부취업가족의 부모기 전이 후 결혼 적응,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고선주·옥선화(1993).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연구 I : 첫자녀 임신기 부부의 결혼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1권 2호, 55-57.
- 김양희(1992). 가족관계학(개정판). 서울 : 수확사.
- 박숙자(1991). 첫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여성사회사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 송지은(1993).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사회적 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송지은·한경혜(1994).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의 유형, *대한가정학회지* 32권 4호, 73-83.
- 양명숙(1993). 부모전환기에서의 연구(1) : 부모역할 관에 관하여-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한국의 부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권 4호, 53-65.
- _____ (1994). 부모 전환기에서의 역할연구Ⅱ-일상가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권 1호, 59-74.
- _____ (1991). 부모전환기에서의 결혼만족도 연구 : 한국의 첫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학 논집* 3집, 31-53.
- 옥선화·정민자(1993). 부모자녀관계, 결혼과 가족, 서울 : 도서출판 하우, 189-195.
- 원정선(1989). 부모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유안진·신양재(1993).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와 부모 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 4호, 141-155.
- 윤숙현(1997). 자녀출산 및 양육의 의미고찰, *호남대학교 논문집* 17집 2권, 437-445.
- 이경희(1991). 부모기로의 전환에 관한 문헌 연구, *연세대학교 원우론집* 18권, 209-229.
- 이동철(1993). 부모역할훈련이 어머니 교육태도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효성카톨릭대 석사 학위 논문*.
-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2, 1-27.
- 이혜란(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학위 논문*.
- 정충규·최이규(1997).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 무역경영사.
- 한경혜·이정화(1995). 남성의 직업역할과 부모기 전이로 인한 긴장감/보상감, *가족학논집* 6, 155-183.
- 현온강(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Belsky, J., & Spanier, G. B., & Rovine, M.(1983).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 I. *Journal of Marriage & Family*, 45, 567-577.

- Family*, 45, 567-577.
- Belsky, J., & Lang, M. E., & Rovine, M.(1984). Social-network Contact, Family Suppor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 Family*, 46, 455-462.
- Belsky, J., & Rovine, M.(1990). Pattern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Pregnancy to Three Year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2, 5-19.
- Blosseld, H. P., & Jaenichen, U.(1992). Educational Expansion and Change in Women's Entry into Marriage Motherhood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4, 302-315.
- Besty Garrison, M. E., Blalock, L. B., Zarski, J. J., & Merritt, P. B.(1997). Delayed parenthood : An Exploratory Study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Relations*, 46, 281-290.
- Bird, C. E.(1997). Gender Differences in the Social Economic Burdens of Parent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9, 809-823.
- Cowan, C. P. & Cowan, P. A.(1995). Interventions to Ease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Why they are needed and What they can do. *Family Relations*, 44, 412-423.
- Cowan, C. P. & Cowan, P. A., Heming, G., Garrett, E., Coysh, W. S., Curtis-Boles, H., & Boles III, A. J.(1985).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6(4), 451-481.
- Dyer, E. D.(1963). Parenthood as Cri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5, 196-201.
- Glenn, N. D., & McLanahan, S.(1982). Children and Marital happiness : A futher spect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 Family*, 44, 63-72.
- Gove, W. R., & Hughes, M.(1984). Overcrowding in the household : An analysis of determinants and effects, New York : Academic Press.
- Hobb, D. F.(1965). Parenthood as Crisi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27, 367-372.
- Hobb, D. F. & Cole, S. P.(1976). Transition to Parenthood : A decade replication. *Journal of Marriage & Family*, 38, 723-731.
- LeMasters, E. E.(1957). Parenthood as crisis, *Marriage & Family Living*, 19, 352-355.
- McKim, M. K.(1987). Transition to What? New Parents' problem in the first year. *Family Relation*, 36, 22-25.
- Miller, B. & Sollie, D.(1980). Nomal stresses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Family Relation*, 29, 459-465.
- Mirowsky, J. & Ross, C. E.(1993). Age and depressions.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33, 187-205.
- Power T. G., & Parke, R. D.(1984). Social Network Factors and the Transition to Parent. *Sex Role*, 10, 949-972.
- Russell, C. S.(1974). Transition to parenthood : problem and gratification. *Journal of Marriage & Family*, 36, 294-301.
- Simons, R. L., Whitbeck, L. B., Conger, R. D., & Melby, J. N.(1990). Husband and Wif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Social Learning and Exchange model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2, 375-392.
- Umberson, D., & Gove, W. R.(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Theory, Measurement, and Stage in the Family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10, 440-462.
- Umberson, D.(1987). Family status and health behavior : social control as a dimension of social integration. *Journal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306-319.
- Ventura, J. N.(1987). The Stress of parenthood reexamined. *Family Relations*, 36, 26-29.
- Wallace, P. M., & Gotlib, I. H.(1990). Marita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Parenthood :
Stability and predictors of Change.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2, 21-29.

Worthington Jr., E. L., & Buston, B. G.(1986). The

Marriage Relationship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s : A Review and a model. *Journal
of Family Issues*, 7, 443-473.